

어휘정리를 조선어발전의 기본문제로 내세운 주체적언어이론의 정당성

정 대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학분야에서는 조선말을 발전시키는 데서 기본문제로 되는 어휘정리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32페이지)

어휘정리사업은 우리 말 어휘구성속에 불필요하게 들어있는 힘들고 까다로운 한자어와 외래어들을 고유한 우리 말로 다듬고 비문화적인 어휘들을 정리하여 어휘구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주체적언어이론은 어휘정리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이 사업을 조선어발전의 기본문제로 내세웠다.

어휘정리사업을 조선말을 발전시키는 데서 기본문제로 내세운다는것은 이 사업을 어음, 의미, 문법과 같은 언어구조의 다른 분야보다 앞세우면서 거기에 주되는 힘을 넣는다는것이며 일시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어휘정리를 언어발전의 기본문제로 내세운 주체적언어이론은 언어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한 사상리론이다.

어휘정리를 조선어발전의 기본문제로 내세운 주체적언어이론의 정당성은 첫째로, 언어의 사회적본질과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말 발전의 기본방향을 가장 정확히 밝혔다는데 있다.

조선어발전에서 어휘정리를 기본문제로 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언어학분야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이다.

주체적언어이론에서는 언어발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언어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언어의 사회적본질과 기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언어는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모든 활동과 호상관계는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언어의 도움을 떠나 이루어질수 없다.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도 인류에게 높은 과학기술, 현대문명을 보급하고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도 다 언어를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언어가 있어야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해나갈수 있다.

언어발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이다. 언어는 그 발생과정자체가 민족의 발생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민족성원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것만큼 민족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 피줄과 함께 언어가 같아야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자기 언어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민족만이 자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민족어는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것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민족어를 지키고 살려나가는 문제는 곧 민족적특성을 살려나가는 문제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민족과 함께 민족어를 말살하려고 갖

은 책동을 다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일제의 조선민족어말살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책동의 극치를 이루었다. 조선에서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은 그 목적부터가 조선민족을 아예 일본놈들에게 동화시켜 영영 없애버리려는 《황국신민화》(《황민화》)의 날강도적인 구호밑에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이른바 《국책》으로 감행된 반민족적, 반국가적범죄행위였으며 조선강점의 첫 시기부터 패망에 이르는 전기간에 감행된 가장 집요하고 포악한것이였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그 수법에 있어서도 류례가 없는 가장 잔인하고 고약한 전대미문의것이였다. 일제는 조선민족전체를 숨쉬는 시체로 만들려고 하였다. 언어를 빼앗고 말살하는것은 그야말로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서 허를 잘라내고 얼을 빼앗는것과도 같은 잔악무도한짓이다.

력사적사실은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은 언어발전에서의 주체확립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은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민족들의 생활 역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런것만큼 언어생활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야 언어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해당 민족성원들에게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느때보다 언어연구와 언어생활에서 자기의것을 지키고 주체적으로 정리해나감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말과 글을 고수하고 그 우수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어휘정리를 조선어발전의 기본문제로 내세운 주체적언어이론의 정당성은 둘째로, 우리 민족어발전의 력사적특성과 언어구조에서 어휘구성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정확

한 분석에 기초하여 언어발전에서 우리 말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갈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세계에 다른 나라 말이 흘러들지 않은 언어는 없다. 특히 제국주의식민지로 있던 나라,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말의 침습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성은 조선어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이로부터 우리 말 어휘구성은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 언어들의 경우와는 달리 어휘구성체계가 고유어만이 아닌 여러가지 어휘부류들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민족어속에 들어온 다른 나라 말의 잔재를 정리하고 없애지 않고서는 민족어의 순결성을 지킬수 없다.

어휘구성은 언어구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어음과 의미, 어휘구성과 문법구조라는 자기 고유의 구조체계를 가지며 이 가운데서 어휘구성은 민족어의 전반체계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할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말의 침습을 특별히 많이 받으면서 언어구조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어휘구성이 대상, 현상에 대한 명명적기능을 가진 단어들과 성구적표현들을 다같이 포괄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명명은 단어의 1차적기능이며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자주적, 창조적인 활동과정에 대상, 현상들에 대한 자기의 인식의 결과를 단어와 같은 어휘표현속에 고착시킨다. 그러므로 당대 사회의 주도적인 사상감정과 지향,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개별적사람들의 개성적특징을 비롯하여 지적, 미적수준 등은 그대로 어휘구성속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그런데로부터 동일한 하나의 대상,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의미해석에서 근본

적인 차이를 가져오는것이다.

이로부터 시대와 사회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게 부단히 어휘를 정리하고 다듬어나가는 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가는 언어 전반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따르는 민족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적극 구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말의 언어구조에서 고유어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유어는 우리 인민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창조한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민족적감정이 스며있는 귀중한 언어요소이다. 고유어는 어감이 풍부하고 섬세한 정서적빛깔을 가지고있으며 표현도 다양하고 말소리울림도 매우 아름답다. 고유어로 나타내지 못할 대상, 현상이란 없으며 고유어만큼 그 표현이 섬세하고 신룡한 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설령탕, 말린쌀, 뜯소문, 딸랑밥, 찢락돈, 얼룩소, 돌버섯, 웃음바다, 벼락잔치, 말주머니, 우쭐렁거리다, 조잘대다, 곱살하다, 예쁘장하다, 소곤소곤, 파릇파릇, 처절씩 ...

고유어는 인민대중이 누구나 다 즐겨쓰고 쉽게 리해하는 말로서 그자체가 우수할뿐아니라 우리 민족어의 구조적핵을 이루면서 그 기능에서도 한자말이나 외래어와 비할수 없다.

실례로 고유어 동사 《하다》는 사용회수가 가장 높을뿐아니라 명사, 부사 등의 말뿌리와 잘 결합하여 수많은 새 동사, 형용사들을 만들어낸다.

이와 함께 《하다》는 그자체가 고유한 우리 말 요소인것으로 하여 비록 앞에 결합하는 말뿌리가 고유어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 그 합성어전체를 우리 말처럼 되게 하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

고유어요소들인 뒤불이 《~히, ~껏, ~스레》나 《~답, ~롭, ~스럽》등도 고유어말뿌리뒤에만이 아니라 다른 말뿌리뒤에도 덧붙여 우리 말화된 새말들을 적극 만들어내고 있다.

극히, 감히, 열렬히, 정성껏, 열성껏, 행복스레, 복스레, 영광스럽다

주체적언어리론은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에는 될수록 고유어를 쓰고 한자어를 정리하며 한자어에 대하여 우리 말로 굳어진것만 쓰고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어휘는 외래적요소로가 아니라 될수록 고유한 우리말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내는것을 어휘정리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어휘정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꾸준히 밀고나감으로써 주체성, 민족성이 력력히 살아있는 순수한 민족어—평양문화어가 조선어연구와 언어생활에서 유일한 본보기로, 기준적언어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민족어의 순수성, 고유성을 살리기 위한 어휘정리사업을 잘해나가야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터전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우리는 주체적언어사상과 리론을 사회주의적민족어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어휘정리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평양문화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표준언어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